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통합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한국기생충박멸협회라는 이름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이제는 한 시절을 품어줬던 ‘기생충박멸’이라는 말조차도 낯설게 느껴진다.

통합을 예고하다

해가 거듭되면서 건강관리 사업의 성장도 거듭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기생충박멸 사업은 사업방향을 새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내 기생충감염률이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학생 검변 집단관리 제도를 검변을 축소 또는 전면중단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2년 3월 15일자 의사신문 기사를 보면 “보사부는 점차 기생충관리 업무가 축소될 것을 예상하고 성인병 관리 비중을 높여 기생충 관리 사업의 비중을 성인병 관리 사업의 일부분으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이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이는 두 협회가 기생충이라는 단일 질환을 넘어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물리적·화학적 통합할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다

1986년 9월 10일 보건사회부는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한국건강관리 협회를 통합하여 전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할 것을 두 협회에 지시했다. 통합의 방법은 건협의 기능을 기협으로 흡수하여 기협을 발전적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협회의 기능은 비전염성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및 예방 사업과 기생충관리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보건계몽·홍보 등 보건교육 기능을 확산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중추적 민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1986년 10월 10일 단체 통합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거친 기협과 건협은 10월 17일 3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두 협회의 대의원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사업의 확대 실시와 기생충 질환 예방법에 의거한 기생충관리의 지속적 실시를 위해서 건협을 기협에 흡수 통합하여 사업 형태와 기능을 새롭게 발전시켜나가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이원화되어 있던 기협과 건협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통합 단체의 명칭은 뒤이어 열린 제2차 긴급 임시이사회(1986.10.20.)에서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결정되었다.

1986년 12월 5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협회 강당에서 3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이후 처음으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었는데, 서병설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그동안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왔던 기협이 보다 발전적이고 헌신적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협을 통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발족되었음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히고 “87년에는 보다 헌신적으로 일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자”고 당부했다.

통합 이후, 건강관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다

새롭게 거듭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었다. 우선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협회의 목적과 이념 사업이 그 의미나 규모 면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주축을 이루었던 기생충관리 사업 역시 일반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존속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기존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건강관리 사업과 협회 운영 방법을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신 장비의 도입과 다양한 검사 종목의 개발, 지부 청사의 신·증축 및 검사시설 확충 등과 함께 전산 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협회는 우수한 조직과 시설, 인력을 겸

비한 보건예방사업 기관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1987년은 새로 통합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원년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 하고 이제는 앞서가는 협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검사에 임함으로써 많은 질병들의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사업을 한층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때였던 것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로의 명칭 변경에 관해

보건사회부는 기협과 건협의 통합 지시 공문에서 통합단체의 명칭을 가칭 ‘한국보건관리협회’로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회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건강증진 사업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로 하기로 하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임시이사회에서 확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명칭 변경안은 1986년 10월 20일 열린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통과됐다.

